

LG 'G7 씩큐' 예판 시작... 이통시장 불황 타개책 될까

5월 성수기·다양한 마케팅 혜택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 등판 활기 기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 11일부터 LG전자의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G7 씩큐(ThinQ)' 예약판매에 돌입했다. 올해 들어 잠잠했던 이동통신 번호이동 시장이 G7 씩큐 출격으로 파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G7 씩큐 예약판매가 순조로운 편"이라며 "정식 출시까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G7 씩큐가 그동안 침체됐던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7 씩큐는 전면 카메라 800만 화소, 후면 카메라는 초광각과 일반각 모두 1600만 화소로 전작 G6보다 각각 300만 화소씩 늘었다. 여기에 일반 스마트폰보다 2배 밝은 디스플레이, 음량을 키워주는 '붐박스' 스피커 등을 갖췄다.

이동통신사는 G7 씩큐의 출시로 번호이동 시장에 반동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고객들이 KT의 'G7 씩큐' 사전예약 개시 소식을 알고 있다. /KT

있었다. 올해 들어 번호이동 건수는 50만건을 단 한 차례 넘겼을 정도로 잠잠했다. 스마트폰 교체주기가 길어지고 25% 선택약정(요금할인)이 시장에 안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통신 번호이동가입자는 43만8448건을 기록했다. 3월 50만 947건보다 약 7만건 줄어든 수치다. 가장 낮았던 시기는 올해 2월로 39만7616

건에 그쳤다.

올 3월은 삼성전자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9' 출시로 번호이동 가입자가 소폭 늘었다. 여기에 LG G7 씩큐의 출격으로 번호이동 시장에 활기가 돌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다. 특히 5월은 이동통신 시장 성수기로 꼽혀 출시 적기라는 평도 나온다.

이동통신사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실시하며 마케팅 경쟁에

나섰다. SK텔레콤은 G7 씩큐를 예약하는 고객에게 자사 인공지능(AI) 스피커 '누구미니'를 제공하며, KT는 직영 온라인에서 예약하는 고객은 '앤쓰리 사운드비 블루투스 스피커', '요이치 셀카봉', '탁상용 다용도 거치대', '3인1케이ابل' 4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18일부터 기기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주문형비디오(VOD) 쿠폰 2만원을 제공하고, 공식 온라인몰인 'U+shop'에서 사전예약을 하는 고객에게는 추가로 방탄소년단(BTS) 정규3집 앨범을 제공하는 등 이색적인 이벤트를 선보이기도 했다.

다만, 눈에 띄는 이동통신 시장 활성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쟁사인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의 실구매가도 하락하고, 스마트폰 성능 상향 평준화로 인해 단말 교체 주기가 길어지는 현상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동통신 3사는 이와 함께 지난 3월 출시한 삼성전자의 '갤럭시S9' 시리즈의 출고가 인하에 나서기도 했다.

KT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 뒤이어 지난 10일부터 갤럭시S9 플러스

256기가바이트(GB) 가격을 115만5000원에서 107만8000원으로 7만7000원 내렸다. 삼성전자의 전작 스마트폰 출고가 출시 두 달 만에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지난 5월 삼성전자와 협의해 같은 모델의 출가를 107만8000원으로, 7만7000원 인하한 바 있다. 공시지원금도 높였다.

지난 3월 갤럭시S9 플러스 출시 당시 SK텔레콤은 최고요금제 기준 지원금을 23만7000원, KT는 24만7000원, LG유플러스는 21만2000원으로 책정했다. 이날 기준, 갤럭시S9 플러스 256GB 공시지원금은 6만원대 요금제에서 KT가 35만원으로 가장 높은 지원금을 실었고 LG유플러스가 27만3000원, SK텔레콤이 26만원 순으로 책정돼 최대 10만원 이상 지원금이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번호이동 시장이 냉각된 했지만 G7 씩큐와 갤럭시S9 시리즈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등판으로 시장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된다"며 "G7 씩큐 정식 출시까지 지켜봐야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G7 씩큐' 오디오·카메라 등 해외 언론 호평

LG전자의 'LG G7 씩큐(ThinQ)'가 해외 언론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업그레이드된 오디오, 배터리, 카메라, 디스플레이 등 스마트폰의 핵심 기능과 생활의 편리함을 더한 인공지능(AI)에 주목했다.

IT 전문매체 폰아레나는 LG G7 씩큐의 카메라에 대해 "전작 대비 화소, 조리개 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으며, 광각의 왜곡까지 줄었다"며 "전·후면 카메라로 아웃포커싱 기능까지 갖춘 괴물 같은 카메라 폰"이라고 극찬했다.

엔가젯은 "초광각 카메라는 그랜드캐니언의 웅장함까지 담을 수 있어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디지털트렌드는 "색상, 디테일, 온도 면에서 화질이 뛰어났던 전작조차도 비

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며 우수한 디스플레이에 주목했다. 미 유틸리티 포브스도 "최대 1000니트라는 깜짝 놀랄만한 밝기로 강렬한 햇빛 아래서도 선명하게 볼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고 밝혔다.

디지털트렌드는 테이블, 상자 등 속이 비어 있는 곳에 올려놓기만 하면 강력한 저음을 구현하는 붐박스 스피커에 대해서 "음악 애호가들이라면 붐박스 스피커에 감사해할 것"이라고 호평했다.

디자인에 대해서는 6.1인치 대화면을 담았으면서도 한 손에 쏙 들어오는 그림감으로 정제되고 깔끔한 멋이 돋보인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엔가젯은 가장 먼저 "제품을 감싸고 있는 메탈 프레임은 부드러운 곡면으로 설계돼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KT, 아프리카 최초 르완다에 LTE 전국망

'트랜스포먼 아프리카 서밋 2018' 참가 4차 산업혁명 발판... 삶의 질 향상 기여

KT가 아프리카 최초로 르완다에 롱텀에볼루션(LTE)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기반으로 아프리카를 비롯한 전세계에 통신 네트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KT는 지난 7~10일(현지시간) 르완다의 수도 키갈리에서 열린 아프리카 최대 ICT 콘퍼런스 '트랜스포먼 아프리카 서밋 2018'에서 르완다에 4G LTE 전국망 구축 완료를 선포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르완다 정보통신부 장관 두 루랑기르와 장관, 앙골라 교육과학기술혁신부 마리아 두 호자리우 브라강카 삼부 장관 등 아프리카 10여개국 ICT 리더들과 주 르완다 김응중 대사 등 국내외 귀빈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프리카 최초의 LTE 전국망 구축의 성공을 축하했으며, 인구 대비 95% 커버리지를 달성한 전국망에 관심을 보였다.

르완다는 자원이 부족하고 국도가 협소한 내륙국가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적 역량 개발 및 ICT 활성화를 통한



9일(현지시간)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KTRN 산드라 사외이사, KTRN 윤한성 사장, KT 글로벌사업추진실 윤경림 부사장, 르완다 정보통신부 장관 두 루랑기르와 장관, 스마트 아프리카 장관 필버트 응생기마나 특별 고문, 주 르완다 김응중 대사, 르완다 정보통신부 레기스 가타라이야 차관, KT 글로벌사업단 김형준 전무. /KT

산업발전'을 국가의 핵심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다. 르완다는 약 1200만명의 인구 중 860만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보유한 국가이며, 이 중 스마트폰 가입자는 115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이번 LTE 전국망 구축으로 르완다의 다수 국민들이 빠른 속도의 네트워크를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르완다 정부는 이번 LTE 전국망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의 발판이 마련돼 르완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르완다 LTE 전국망 구축은 2013년 르완다정부와 공동으로 조인트벤처(JV)인 KTRN(KTRwanda Networks)을 설립하고 2014년 11월 수도 키갈리에 상용서비스 제공을 시작한 지 3년6개월 만에 이룩한 성과다.

KT는 르완다에서의 사업경험을 바탕으로 나이지리아, 남아공, 말라위, 베냉, 세네갈 등 여러 아프리카 국가와 협력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르노삼성 QM6 파미에스테이션 라운지.

르노삼성, 신세계百貨 강남점 QM6라운지 운영

르노삼성자동차는 오는 20일까지 서울반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 있는 파미에스테이션에서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 전시장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2019년형 QM6차량이 전시된 QM6 파미에스테이션 라운지에서는 차량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e커머스) 쇼핑 체험이 가능한 공간을 갖췄다. 회사 측은 차량 시승과 구입 상담 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e커머스 회원으로 가입한 소비자에게 커피 교환권과 식사권 등을 증정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각종 행

사도 진행한다.

지난 2일 출시된 2019년형 QM6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과 동작만으로 트렁크를 여닫는 '매직 테일 게이트' 기능, LED(발광다이오드) 헤드램프 등을 LE 트림(세부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나파 가죽 시트와 대시 보드, 조수석의 글로벌박스 등을 꾸미는 '프리미엄 인테리어 패키지'도 마련했다. 이 밖에 열차단 및 차음 앞유리, S 링크 내 애플 카플레이 등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확대 적용한 게 특징이다. /양성운 기자

두산중, 국내외서 잇따라 ESS 사업 수주

(에너지저장장치)

SK E&S와 ESS 설비 공급 계약

두산중공업이 최근 국내외에서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사업을 잇달아 수주했다. 두산중공업은 SK E&S와 '전력수요 관리용 ESS'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력수요 관리용 ESS는 전력 사용량이 많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전력수요가 낮은 야간 시간대에 남은 전기를 저장하고, 이를 전력수요가 높은 시간대에 사용해 이익을 거두는 사업이다.

경남 창원 두산중공업 공장 내에 관련

설비가 구축되며, 두산중공업이 ESS 공급을 담당하고 SK E&S는 투자·운영을 맡아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을 제공한다. 두산중공업은 자체 보유한 ESS 제어 소프트웨어와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설계부터 기자재 공급, 시공까지 일괄 수행해 오는 9월까지 70MWh 규모의 ESS를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SK E&S와 공동으로 공장 에너지 관리 시스템인 FEMS와 태양광 발전 등을 구축해 공장 단위 마이크로 그리드(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한 소규모 지역 전력 자급자족 체계)를 운영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달 27일 전력기분분야 중소기업 BSS에 ESS 제어 소프트웨어와 배터리 시스템을 패키지로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3일에는 미국 자회사인 두산그리드텍이 '퀵슈머스 에너지'와 미시간주 남서쪽 도시 칼라마주 변전소에 들어갈 ESS를 수주하기도 했다.

김성원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에너지 시장 분석 기관에 따르면 전 세계 ESS 시장 규모가 2019년 39억 달러에서 2024년 82억 달러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ESS 시장을 적극 공략하는 한편 ESS와 연계한 태양광 발전소 건설·운영으로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